



OIII-6

한국 성인의 상악 전치부 인공치아 선택기준에 관한 연구

안현정*, 양홍서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성공적인 상악 전치부의 보철수복은 구강주위 연조직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며 심미적으로도 만족스러운 보철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상악 전치부 인공치아 선택시에 인체계측법을 이용하는 경우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상교합을 가진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재학생 91명(남자 49명, 여자 42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건 하에서 Digital Camera(Olympus®, C-2500L, JAPAN)로 촬영후 영상·분석 프로그램(Image Pro® plus, Media Cybernetics, USA)을 이용하여 안면 폭경, 비익간 거리를 계측하고, 제작된 석고 모형에서 vernier calipers를 이용하여 상악 중절치 폭경과 상악 6전치 폭경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와 결론을 얻었다.

1. 상악 중절치 폭경은 평균 8.11 ± 0.67 mm, 상악 6전치 폭경은 평균 37.88 ± 2.15 mm, 안면 폭경은 평균 141.29 ± 5.84 mm, 비익간 거리는 평균 37.85 ± 2.29 mm이었다.
2. Student's T-test상, 안면 폭경, 비익간 거리, 상악 중절치 폭경, 상악 6전치 폭경은 모두 남자군이 여자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었다($p < 0.01$).

3. 안면 폭경/상악 중절치 폭경의 비율은 17.4, 안면 폭경/상악 6전치 폭경의 비율은 3.7, 비익간 거리/상악 6전치 폭경의 비율은 1.0 이었다.

4. Pearson 상관분석에서 안면 폭경, 비익간 거리, 상악 중절치 폭경, 상악 6전치 폭경은 4 항목 모두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 < 0.01$).

5. 선형회귀분석 결과 그 중에서 비익간 거리와 상악 6전치 폭경 사이의 관계가 가장 큰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Y = 7.046 + 0.815X$, $R^2 = 0.753$).

이상의 결과로, 상악 전치부의 인공치아 선택시에 안면 폭경과 비익간 거리는 매우 중요한 임상적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보다 더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인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